

Reflection 6

ICIS Newsletter, Kansai University



Contents

제2회 차세대 국제 학술포럼	2
제4회 국제 포럼	4
제3회 국제심포지엄	5
ICIS 공동개최 심포지엄	6
컬럼 / 보우노츠(坊津)에서 -교섭거점, 그 후-	7
문화교섭학 전공 RA대담.....	8
연재컬럼 / 식(食) 문화의 문화교섭학(5)	9
활동 보고	10
기요 원고 모집 안내·편집후기	11

ICIS

일본 문부과학성 글로벌 COE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

Institute for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Kansai University

제 2 회 차세대 국제학술포럼

“문화교섭을 통한 변용의 제상(諸相)”

2009년 12월 12·13일,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ICIS)주최 제 2회 차세대 국제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

본 포럼의 목적은 “문화교섭”이라는 주제를 통해, ICIS의 신진연구자들이 향후 각 분야를 이끌어갈 차세대 연구자들과 함께 전문화된 지식과 시야를 공유하고 다시 자신의 연구에 피드백하고자 하는 데 있다.

2008년 12월, 제1회 차세대 국제학술포럼 ‘경계면(境界面)에서 본 문화의 재생산’에서는 문화교섭의 ‘장’을 재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화교섭이란 지금까지 이해되어 온 것과 같이 국가간·민족간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 그리고 말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얻어냈다. 이번 제2회 포럼에서는 문화교섭의 ‘결과’에 주목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변용되며 창출될 것인가, 그리고 그 변용의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세션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발표를 하였다.

조셉 보스코(Joseph Bosco·홍콩중문대학, 교수)선생은 기조강연을 통해 ‘어느 대상에 대한 종교적·문화적·과학적 시점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수용하여 정합(整合)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말하였다. 이는 ‘공통의 주제·유사한 대상,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는 제분야들을 문화교섭이라는 틀에 어떻게 가지런히 맞춰 이해시킬 것인가’라는 본 포럼의 목적과도 일치하였다.



조셉 보스코 선생

세션1은 ‘신성한 물·마음의 물-자연과 사람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하에 이노우에 미즈유키(井上 充幸·COE 특별연구원)선생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인간은 물을 통해 청정(淸淨)과 성성(聖性), 풍양(豊穰)의 관념을 생성하였다. 이렇듯 세션1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물’의 변용에 대해 주목하였다. 대만의 도교의례에 등장하는 ‘물’의 의의와 효능에 대해 발표한 야마다 아키히로(山田 明廣·간사이대학 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센터, PD)선생, 중국 산서성의 천수(天水)농업신앙에서 보이는 다채로운 기우제와 그 전개 양상 및 물 신앙의 확대를 다룬 이구로

시노부(井黒 忍·교토대학, 강사)선생, 중세일본 농업용수와 신사(神社)신앙·농경의례에 대해 발표한 카와바타 야스유키(川端 泰幸·오타니(大谷)대학, 강사)선생, 한반도에서의 물의 상징성과 사상적 배경 및 경관화(景觀化)을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발표한 최원석(崔元碩·경상대학교, 연구교수)선생, 이상 4명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들 발표에서는 각기 다른 4가지 지역과 시대를 통해 물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화(淨化)의 매개, 신, 권력의 상징, 생활풍경 등으로 다양하게 변용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신지르트(Shinjilt·구마모토(熊本)대학, 교수)선생은 ‘자연과 인간’이라는 근대 서구의 이분법적 발상이 동아시아의 전통관념을 관찰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몇몇 발표에서 언급된 ‘심성(心性)’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사료에 보이는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현재 남아있는 전승·신앙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와바타 선생(왼쪽)과 이구로 선생(오른쪽)

세션2 ‘에스닉(ethnic) 요소와 종교실천 그리고 종교 커뮤니티 형성으로 본 문화교섭’에서는 3명의 보고자가 개인의 신앙과 국가의 관점, 에스닉 요소에 얽매이지 않는 문예교류와 커뮤니티 등 종교실천을 축으로 한 문화교섭의 전개와 변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카와베 유타이(川邊 雄大·고쿠시칸(國土館)대학, 강사)선생은 근대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의 중국포교 활동과 현지 문인들과의 교류에 대해 발표하였다. 요시모토 야스코(吉本 康子·국립민족박물관, 외래연구원)선생은 민간신앙적 요소가 짙은 ‘바니(ba-ni)’와 ‘스니(Sunni)’파 이슬람이라는 참족의 두 무슬림 종파에 대해 살펴보



카와베 유타이 선생

았다. 세션2를 진행한 황 윈(黃 蕪·COE-PD)선생은 말레이시아 불교협회가 지닌 민족과 커뮤니티의 중층성과 함께 국경을 초월한 그들의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에 세리자와 토모히로(芹澤 知廣·나라대학, 교수)선생은 중국포교활동에 대한 일본인 불교도의 인식과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시대의 종교·민족정책 등에 대해 각 발표자에게 질문한 후, ‘종교 커뮤니티’와 ‘에스닉’ 개념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들 발표에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교실천과 변용의 양상이 언급되었으며 논증의 자료와 방법론 또한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이러한 다양성과 풍부함을 어떻게 연관지어 나갈 것인가가 각 연구자들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세션3은 히노 요시히로(氷野 善寛·COE-DAC)선생의 사회로, 번역과 외국어 교본에 보이는 용어와 개념 및 언어교육의 변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쑨 칭(孫 靑·COE-PD)선생은 Chambers의 저서 『Political Economics』가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정치와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술자와 필역자들 사이에 두고 번역어가 어떻게 변용되어가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시엔 밍(鮮 明·북경외국어대학, 박사과정)선생은 청나라 말기에 중국인이 사용한 일본어학습서를 비교·고찰하여 유럽식과 중국식이라는 두 가지 학습법이 존재했음을 지적하였다. 치바 겐고(千葉 謙悟·츄오(中央)대학, 조교)선생은 선교사 Flémal이 집필한 중국어학습서 『중국어 문주해(中國語文注解)』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서양인들이 필요로 한 중국어 학습법과 서양인의 중국어인식을 해석하였다. 특히 두 발표는 문화교섭연구의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용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한편 토론자인 리웨이(陳 力衛·

세이쥬(成城)대학, 교수)선생은 각 발표가 모두 현재 주요한 주제이자 실증성이 높은 연구성과임을 평가하며 각 발표에 대한 제안과 함께 사상사를 비롯한 다양 시각을 통해 새로운 방법론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쑨 칭 선생

각 세션의 내용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완결된 것이었으나 세션1과 세션2에서 보이는 신앙과 심성의 문제, 그리고 세션2와 세션3에서 언급된 해외선교와 현지어의 습득·교육 등, 세션끼리의 연관성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각 발표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포럼이 끝난 후, 발표자들은 자신과 전공 또는 방법론이 다른 연구자들의 여러 정보와 코멘트에 자극을 받았다고 하였다. 인문학 연구의 전문화(專門化) 및 세분화(細分化)가 꼭 연구의 다양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인문학 분야에 감도는 폐쇄성을 극복해 가는 것 또한 본 포럼의 의의이며, 동시에 문화교섭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참가자들과 특히 차세대를 이끌어갈 대학원생들에게 전달되고 또 과제로 기억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이다.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 啓方·COE특별연구원)



관계자 기념촬영

제 4 회 국제포럼

근대 동아시아 문체의 변천 -형식과 내실의 모순을 넘어-

2009년 12월 20일 간사이대학에서 ICIS와 CSAC가 공동주최하는 제4회 국제포럼 “근대 동아시아 문체의 변천 - 형식과 내실의 모순을 넘어” 가 개최되었다. 국내외 연구자들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조보고

시아 샤오홍(夏曉虹·북경대학, 교수)선생의 “백화문공문서(白話文告)와 『성유(聖諭)』의 해석 - 청나라 정부와 청말 백화문운동”, 최용철(崔溶澈·고려대학교, 교수)선생의 “근대 한국의 번역 소설 문체의 변천”, 우치다 케이이치(内田慶市·간사이(關西)대학, 교수)선생의 “근대 구미인의 중국어 문체관”, 이상 세 사람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시아 샤오홍 선생

시아 샤오홍 선생은 청나라 정부의 백화문 공문서와 『성유광훈(聖諭廣訓)』의 백화문독본(白話讀本) 분석을 통해 이것들이 청나라 말기 백화문운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였다. 최용철 선생은 근대 한국에서 전개된 ‘서양문학 번역 논쟁’을 바탕으로 중국소설의 번역문이 평이한 한글문체로 변화가는 과정을 『홍루몽(紅樓夢)』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치다 선생은 선교사들이 기록한 다양한 문체(문어·구어·백화)의 문장을 검토하고 근대 구미인들이 어떠한 중국어를 익히고 어떻게 이해·인식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세션 1

세션1에서는 야스다 토시아키(安田敏朗·히토즈바시(一橋)대학, 준교수)선생의 “‘문체 개선’의 행방 - 전쟁 전후 일본어 구어체 문체”, 사이토 마레스(齋藤希史·도쿄(東京)대학, 준교수)선생의 “근대 혼독체와 동아시아”, 오쿠무라 가요코(奥村佳代子·간사이(關西)대학, 준교수)선생의 “당화(唐話)교과서의 회화문과 백화문”, 이시자키 히로시(石崎博志·류큐(琉球)대학, 준교수)선생의 “류큐(琉球)의 문체 변천으로 본 『유구역(琉球譯)』의 언어” 이상 네 사람이 발표하였다.



최용철 선생

야스다 선생은 국어심의 회 등에서 이루어진 자문(諮問),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따른 논의, 헌법의 구어체 채용 등 ‘구어문체’을

둘러싼 다양한 움직임을 전쟁 전·중·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사이토 선생은 ‘혼독체’가 메이지시대에 공격적인 성격의 문체가 된 의미를 사상적·사회적 배경을 통해 짚어보고 이를 동아시아 근대 통용문체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였다.

오쿠무라 선생은 에도시대 중국어 자료인 당화(唐話)자료에 대해 검토하고 당통사(唐通事)가 남긴 여러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시자키 선생은 1800년에 편찬된 『유구역』을 중심으로 류큐의 문자자료를 통해 이것이 어떤 언어와 문체로 기록되었으며 한문혼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세션 2

마지막 세션에서는 왕 평(王風·북경대학, 부교수)선생의 “루쉰(魯迅)형제의 초기 번역과 현대 중국어의 서기언어(書記言語)”, 다케코시 타카시(竹越孝·아이치켄리츠(愛知縣立)대학, 준교수)선생의 “조선시대 말기 중국어회화서 - 문법과 문체”, 자오 등메이(趙冬梅·고려대학교, 부교수)선생의 “조선시대 후기 한문소설의 문체에 대해서”, 셴 귀웨이(沈國威·간사이(關西)대학, 교수)선생의 “청말민초(清末民初) 국민필독서의 문체에 대해서”, 이상 네 사람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우치다 케이이치 선생

왕 평 선생은 루쉰(魯迅), 저우 쩌런(周作人)형제의 초기 번역작품을 중심으로 두 인물의 문학활동에서 보여지는 백화문의 실천 및 서기언어(書記言語)와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다케코시 선생은 조선시대 말기의 회화서를 예로 각각의 편찬경위와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특수한 용법의 한문이 동아시아 지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자오 등메이 선생은 조선시대 중·장편 한문소설과 중국의 고전백화소설을 비교하고 후자가 전자에 미친 영향과 조선시대 한문소설이 갖는 독자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셴 귀웨이 선생은 국민교육용 계몽서인 5권의 국민필독서 중 대표적인 2권을 중심으로 간이판(簡易版)의 필요성과 문언(文言)과 백화의 구별, 형식과 내실의 모순 및 그에 대해 해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 3 회 국제심포지엄

문화교섭으로서의 선교(宣敎)와 포교(布敎) -근대 이후의 새로운 추세-

2010년 1월 23일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연구거점에서는 “문화교섭으로서의 선교와 포교 - 근대 이후의 새로운 추세” 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은 제1부(오전)와 제2부(오후)로 나뉘어 본교 미야모토 요우타로(宮本 要太郎)선생을 비롯한 나카마키 히로치카(中牧 弘允·국립민족박물관, 교수)선생, 쉬 이화(徐 以驊·푸단(復旦)대학미국연구센터, 교수)선생 등 7명의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독교·불교·일본계 종교의 선교와 포교, 국경을 초월한 종교의 확대에 초점을 맞춰 문화교섭의 관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부(오전)

하와이(Hawaii)의 일본계 종교

미야모토 요우타로(宮本 要太郎·간사이대학, 교수)

하와이의 일본계종교 유입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기는 1900년 전후로 정토진종(淨土眞宗)을 비롯한 여러 불교 종파와 신도교단(神道敎團)이 유입되었다. 제2기는 1920~30년으로 신종교(新宗敎)로 분류되는 종교 중에서도 이른 시기에 성립된 천리교(天理敎)와 금광교(金光敎) 등이 유입되었다. 제3기는 1950년 이후로 해외포교를 시작한 신종교가 유입되었다. 앞으로 하와이인 또는 재하와이 일본인들의 정체성과 일본계 종교가 상호 어떤 관련성을 맺고 융합되어 가는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의 불교 포교와 침투

이와모토 아케미(岩本 明美·간사이대학, 강사)

미국의 불교신자는 크게 아시아계 이민 불교도와 비아시아계 불교도로 나누어지며 후자의 대부분은 선(禪)·티베트불교·테라바다(Theravada)불교 신자라고 한다. 본 발표는 일본 선종의 미국 포교활동을 개관하면서 미국인 승려가 개원한 선(禪)마운틴 승원(僧院)이 미국에서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그리고 승원의 특성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계자 기념촬영

모라비아(Moravia) 교회의 티베트 포교

후시미 히데토시(伏見 英俊·ICIS, 교수)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에 의한 성서(聖書)의 티베트어 번역은 독일의 프로테스탄트계 교단인 모라비아 선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독일의 초기 티베트연구 역사는 Heinrich August Jaschke & August Hermann Franke(1870-1930)를 비롯한 모라비아 교회 선교사들의 성서 번역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가가와 토요히코(賀川 豊彦)와 중국

리우 지아펑(劉 家峰·화중사범대학, 교수)

가가와 토요히코는 목사·사회활동가·평화주의자 등 다방면에 걸쳐 활약한 일본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전쟁 전부터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크리스트교 포교와 강연을 펼쳤다. 본 발표는 크리스트교 사회주의자·평화주의자라는 가가와의 2 가지 면모를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활동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 2 부(오후)

나카마키 히로치카(中牧 弘允·국립민족박물관, 교수)선생, 쉬 이화(徐 以驊·푸단(復旦)대학미국연구센터, 교수)선생, 츠치바 히로시(土屋 博·홋카이도(北海道)대학, 명예교수)선생은 각각 “글로벌 종교의 경영과 마케팅 - 아시아계 종교를 중심으로”, “일본의 크리스트교 포교”, “세계포교·선교의 현재” 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아시아종교의 세계적 전개와 그에 대한 경영전략, 일본의 크리스트교 전도(傳道)·수용의 역사와 일본 크리스트교계의 특징, 그리고 종교의 포교활동과 국제관계, 통신혁명 등을 다룬 세 강연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중요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는 만큼 본 심포지엄에서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황 윈(黃 蘊·COE-PD)

한국국학진흥원 / ICIS 공동주최 심포지엄 “주자가례와 동아시아의 문화교섭”

2009년 11월 2일·3일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본교 ICIS와 한국국학진흥원이 공동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 “주자가례와 동아시아 문화교섭”이 개최되었다.

일본측은 ICIS에서 타오 떠민(陶 德民)교수와 아즈마 주지(吾妻 重二)교수가 참가하였으며 그 밖에 서원 과학연구비조성금(기반연구A, 대표:아즈마) 멤버 중 미우라 쿠니오(三浦 國雄)·유아사 쿠니히로(湯淺 邦弘)·시마오 미노루(嶋尾 稔)·이노우에 코이치(井澤 耕一)·시라이 준(白井 順)선생이 발표하였다. 심포지엄은 세션1 ‘주자가례의 지성사적 맥락’·세션2 ‘주자가례의 확산과정’·섹션3 ‘동아시아 가례문화의 제양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션3은 다시 ‘중국 가례문화의 제양상’·‘일본 가례문화의 제양상’·‘한국 가례문화의 제양상’



심포지엄에서의 발표

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또 한일 연구자를 비롯하여 미국의 패트리시아 이브리, 캐나다의 송 짜이륜(宋 在倫), 중국의 양쯔강(楊 志剛), 대만의 티엔 스밍(田 世民) 何 수이(何 淑宜) 선생 등

『가례(家禮)』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참가하여 세계 최초 『가례』 국제학회가 개최되었다. 『가례』연구의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학회이기도 했던 셈이다.

한편 일본측 멤버들은 심포지엄에 앞서 안동지방의 목계서원·고산서원·병산서원·소수서원 및 종가의 사당 등을 조사·참관하였다. 또한 도산서원의 제사, 그리고 풍산 김씨 종가의 성대하고 엄숙한 불천위(不遷位) 제사에 참석하는 등 한국 유교의례를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도움을 주신 국학진흥원의 김병일 원장·박원재 연구부장·경상대학교 장원철 교수·김덕현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심포지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ICIS기요 『동아시아 문화교섭연구』 제3호 「활동보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아즈마 주지 (吾妻 重二 · ICIS 교수)



도산서원의 제사

ICIS /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공동워크숍 “15-16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다층성(多層性)”

2010년 4월 17일 간사이대학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과 ICIS가 주최하는 공동워크숍 “15-16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다층성”이 개최되었다. 먼저 하라다 마사토시(原田 正俊, ICIS 교수) “15·16세기 일본승려와 동아시아-일본과 조선의 교류를 중심으로-”와 노다 타이조(野田 泰三, 교토코카[光華]여자대학 교수) “무로마치막부 슈고다이묘(守護大名)의 대외인식”에서는 14세기 후반 15세기 일본의 대(對)동아시아 관계의 전제 및 대외인식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의 이상훈(한국해군사관학교 박물관 기획실장) “임진왜란 강화 진행과정에서 보이는 피로 양왕자(被虜王子)에 대한 역할 강요”, 김강식(동서대 교수) “임진 조일전쟁 시기 일본의 조선 지배책의 변화와 조선의 대응”, 그리고 일본의 키타가와 히로시(北川 央, 오사카성 천수각 연구 부주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외인식”에서는 히데요시의 조선침략과 관련된 여러 양상들이 지적되었다. 끝으로 허남

린(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교수)선생은 “국제분쟁과 역사를 움직이는 힘-변용하는 16세기말의 동아시아사회-”를 통해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친 동아시아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해 일본과 조선을 비교 분석하였다.



종합 토론

종합토론은 청중석을 포함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임진왜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국민국가 개념을 넘어 한일 양국의 입장과 인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 · ICIS-PD)

보우노츠(坊津)에서 -교섭거점, 그 후-

아라타케 켄이치로(荒武 賢一朗, ICIS 조교)

문헌사학과 현지답사를 함께 해나가다 보면 종종 과거와 현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엔 죠카마치(城下町)의 중심지였던 곳이 지금은 농지로 변해있거나 현재는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지역이 실은 상업도시였다는지 하는 경우 말이다. 각각의 지역은 저마다의 역사가 있으며 여러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보우노츠(坊津)

2010년3월, 나는 처음으로 사츠마반도의 보우노츠(坊津 [ぼうのつ], 가고시마현 남사츠마시)를 방문하였다. 머무르는 동안 동중국해에서 불어오는 강풍과 대륙에서 날아오는 황사의 영향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런 곳은 날씨를 제외하면 보우노츠는 고요하고 평온한 어촌이라는 표현이 제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옛날 이곳은 하카타노츠(博多津, 시즈오카현), 아노츠(安濃津, 미에현)와 함께 ‘일본삼진(日本三津)’으로 불리며 해외 여러 나라들과 일본을 잇는 관문을 담당하였다. 더 먼 옛날에는 견당사(遣唐使)의 배가 드나들었다고 전해지며 중세후기에는 아시아를 석권한 왜구의 거점으로 그리고 에도시대에는 사츠마 밀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교역의 터미널이자 해역(海域)아시아의 요충지였던 것이다.



보우노츠(坊津)에서 바라 본 동중국해

특히 보우노츠는 아시아교역사나 사츠마-류큐 관계사 분야에서 더욱 눈에 띄는 존재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마을의 특징에 대해 정확히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밀무역이 격감했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기의 보우노츠는 과연 어떤 마을이었을까? 현지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밀려드는 나의 궁금증은 이윽고 어떻게든 그 일단(一端)을 밝혀보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변해갔다.

궁금증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보우노츠 역사자료센터 키신

관(輝津館) 상설전시관에 진열된 한 점의 족자에서 찾을 수 있었다. 눈 앞에서 번뜩이는 이 족자는 에도시대 보우노츠에서 상업에 종사했던 모리가(森家)에 전해지는 물건으로 5점의 시키리쵸(仕切状, 상품 거래시 보내는 서장)가 정리되어 있다. 5점의 문서는 모두 덴포(天保) 13년(1842) 9월에 작성된 것으로 모리가에서 상품을 구입한 각지의 상인들이 보내 온 것이었다. 상인들의 거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중 한사람이 ‘효고(兵庫) 코마메야 사에문(小豆屋 市左衛門)’이라는 서명을 남기고 있다. 이를 효고츠(고베시)라고 가정한다면 서일본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물류 현황을 밝힐 수 있다.



보우노츠 사람들과 함께해온 이가와(井川)의 이웃 마을인 마쿠라자키(枕崎)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고토열도에서 우쿠시마(屋久島)에 이르는 ‘서해주축(西海主軸) 라인’은 당시에도 일본 유수의 어장이었다. 다시 모리가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현지 산물의 판매야 당연하겠지만 다소 거리가 있는 아마쿠사와 고토열도의 가즈오부시가 보우노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 그러나 교역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보우노츠 상인들이 세 지역 상업을 리드했다고 보면 그다지 어색함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안팎의 정세에 기민한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아시아로 가는 창구였던 보우노츠는 서해지역의 물류 터미널로 변화하였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작은 마을은 그 표정을 바꾸어가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토우진마치(唐人町) 부근의 모습



문화교섭학 전공 RA 대담

각국에서 본 베트남-바인미(Bánh mì)는 프랑스 빵인가—

2009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주변(周邊)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교섭학 소속 대학원생들이 10일간 베트남 후에에 머무르며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베트남·일본·한국·중국·대만 출신의 학생들은 베트남과 자문화의 차이, 타지역 학생과의 문화 배경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이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이나가키 토모에(稻垣智慧) : 오늘의 테마는 베트남의 음식이지만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탓인지 거리에서 커피와 프랑스 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라도 매일 아침식사로 먹었구요.

다나카 아즈미(田中梓都美) : 여러분의 모국에서는 프랑스 빵을 뭐라고 부릅니까?

펑 허양(馮赫陽) : 중국은 ‘파빵(法棒)’ 또는 ‘파군(法棍)’이라고 부릅니다. ‘파(法)’는 ‘프랑스’를 뜻하고 ‘빵(棒)’과 ‘군(棍)’은 각각 가늘고 긴 모양을 뜻합니다.

천 치송(陳其松) : 대만에서는 일본처럼 ‘파귀미엔빠오(法國麵包)’, 즉 ‘프랑스 빵’이라고 합니다.

정영실(鄭英實) : 한국에서는 ‘바게트’라고 합니다.

구웬티 하타인(Nguyen Thi Ha Thanh) :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먹은 빵은 현재 ‘바인미(Bánh mì)’라고 불리는 빵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유입된 빵에 힌트를 얻어 중국인들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베트남 고유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대륙에서 들여온 쌀을 보고도 외국을 연상하지 않는 것처럼 베트남인들도 바인미를 다른 나라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인미는 그 만큼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서민적이고 일반적인 음식인거죠.

다나카 : 바인미는 외형면에서 ‘프랑스 빵’과 비슷하지만 프랑스와는 무관한 지극히 베트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베트남에는 프랑스 빵이라고 불리는 빵이 있습니까?

하타인 : 베트남에도 ‘바인미팍(Banh mi Phap)’, 즉 프랑스



바인미

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가게에서 파는 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바인미는 주로 할머니들이 광주리에 담아 팔거나 노점상들이 팔죠. 때문에 바인미팍과 바인미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 : 확실히 바인미는 평소 먹는 프랑스빵보다 부드러웠지만 길쭉한 모양과 프랑스 식민지였다는 베트남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프랑스 빵이며 베트남에서도 고급 빵일거라고 단정짓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파귀미엔빠오(法國麵包)는 주로 서양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비일상적이며 상류계급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상시 그다지 안 먹는다는 것도 이러한 이미지 생성에 관계가 있겠지요.

이나가키 : 흰 원피스를 입은 우아한 여성이 오렌지와 함께 봉투에 넣어 가고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일본에도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정 : 한국에서 빵은 주식이 아닌 간식으로 취급되다 보니 바게트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유명한 빵가게들이 프랑스 풍 상호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바게트는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그다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느낄 수는 없네요.

하이(海) : 중국에서도 빵은 일상생활에 그리 깊이 침투해 있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처럼 시간이 없을 때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먹는 것으로 파빵(法棒)이라는 명칭에서 고급스런 이미지는 연상할 수 없네요.

펑 : 우리는 가늘고 긴 모양만을 보고 바인미가 프랑스에서 전래된 것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자국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번 대답을 나눌 때까지 베트남에서 매일 먹은 빵의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정 : 개념과 명칭을 동일시 해버리는 행동이 아주 무서운데요, 베트남에 머무르는 동안 현상에 숨어있는 내면에 대한 고찰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나가키 : ‘가늘고 긴 빵’이라는 이런 작은 것에서도 국가마다 다른 명칭과 이미지가 존재 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타문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자신과 현지인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려는 노력이 문화교섭학적 연구의 전제 요소라는 것을 재차 실감하였습니다.



제 5 회

‘콘부(昆布)’·‘하이다이(海帶)’ 그리고 ‘다시마’

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 · ICIS-PD)

‘콘부(昆布) 로드’ 라는 말이 있다. 원래 다시마는 일본에서도 북해도나 동북지방 북부로 그 산출지가 한정되지만 해상교통의 발전과 함께 동해(일본해)연안에서 서일본으로도 대량 운반되게 되었다. 에도시대 중기 이후, 나가사키 당선무역(唐船貿易)의 중요 수출품이 은(銀)에서 동(銅)과 해산물로 대체됨에 따라 다시마는 특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18세기 후반에는 사츠마·류큐(현재의 오키나와)경유의 진공선(進貢船)에 의한 다시마의 중국수출도 본격화해 간다. 이와 같은 다시마의 유통은 운반로 각지의 다시마 소비를 자극하고 지역의 식문화(食文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본래 다시마가 나지 않는 류큐에서도 돼지고기를 다시마와 함께 볶아 만든 쿠브이리치처럼 독특한 다시마 식문화가 발전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제색(諸色)’ 해산물로 구분되는 다시마는 ‘타와라모노(俵物, 근세 나가사키무역에서 수입품의 교환물이었던 동 대신에 수출에 충당된 수산물)’인 말린 해삼·말린 전복·상어지느러미에 비해 단가는 싸지만 진공선 한 척 당 대략 10만근(약60톤)이 중국용으로 수출되었다. 적재물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다시마는 당시 류큐 진공선 무역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마의 한자표기인 ‘昆布’는 원래 중국에서 전해진 듯하다. 6세기 도홍경(陶弘景)의 『명의별록(名醫別錄)』에 기록된 ‘콘부(昆布)’는 헤이안 초기에 성립된 『속일본기(續日本紀)』에도 이미 보이고 있다. 10세기에는 『엔기식(延喜式)』·『혼조와묘(本草和名)』·『와묘루이쥬쇼(倭名類聚抄)』등을 통해 다시마가 본래 ‘히로메(ひろめ)’ 또는 ‘에비스메(えびすめ)’로 불리었으며 이미 상당히 광범하게 상용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한어(漢語)인 ‘昆布’를 읽는 방법으로 ‘콘부(コンブ)’가 보급되게 된다. 한편 도홍경이 ‘昆布’는 ‘고려(高麗)’에서 산출된다고 기록한 것처럼 조선에서도 오래 전부터 다시마를 채취하여 먹고 있었으며 다시마



사진1

의 한자표기 ‘多士麻[다사마]’는 많은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다시마는 또 하나 ‘하이다이(海帶)’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다. ‘海帶’는 11세기 이후에야

보이는 비교적 새로운 명칭으로 16세기 말 이자진(李自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도 ‘海帶’를 ‘昆布’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 해설은 간



사진2

소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류큐에서 반입한 다시마를 모두 ‘海帶菜’로 기록하고 있으며 근세 이후 한결같이 ‘海帶’로 불렸으며 ‘昆布’는 같은 다시마목 다시마과로 분류되는 검등감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근대 이후 다시마 양식을 시도한 중국은 현재 세계 으뜸가는 다시마 생산대국이 되었다. 다시마는 중화요리에서 그리 높지 않게 평가되지 않으며 오히려 서민요리의 식재료이다. ‘海帶絲[하이다이스]’라고 불리는 다시마채는 나물요리로 식탁에 오르기도 하고 고기와 함께 볶거나 삶아 먹기도 한다. 귀중한 요오드(沃素)의 공급원으로 연해지역은 물론 내륙지역에서도 많이 먹는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다시마를 우려내거나 고기·생선과 함께 삶거나 하는 외에 다시마를 한 입 크기로 잘라 튀긴 다시마튀각 등도 있다. 일본에서는 특히 서일본을 중심으로 다시마를 우려내는 것 외에도 콘부마키(다시마로 말아서 만든 음식)나 조림 등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으며 행운을 빌기 위한 징표로 경사에는 빠뜨릴 수 없다. 현재 중국에서는 싼 가격에 흔한 식재료로 머물고 있는 듯 하지만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일본·한국음식점이 진출하는 등 일본이나 한국 식문화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시마에 대한 평가 또한 변해갈지도 모르겠다.

【사진1 : 쿠브이리치】

쿠브이리치. 다시마를 돼지고기와 함께 볶는 것은 가고시마 이북과는 다른 오키나와 특유의 식문화이다.

【사진2 : 하이다이스】

하이다이스(海帶絲). 나물로뿐만 아니라 고기, 야채 등과 볶는 등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어 중화요리에서는 친근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다.

❖ ICIS 연구자세미나

제 25 회 연구자 세미나 : 2009 년 12 월 18 일

- * 우 전(吳震 · COE 객원교수, 푸단 [復旦] 대학교수)
「송명(宋明)에서 명청(明清)으로의 전향 - 유학과 종교의 관계로 본 明清思想의 연속성」
- * 평 진롱(馮錦榮 · COE 객원교수, 홍콩대학부교수)
「아라카즈 분사쿠(荒勝 文策, 1890-1973)와 타이베이 제국대학의 물리학 연구」

❖ 제 3 회 차세대 국제 학술 포럼 안내

간사이 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에서는 제 3 회 차세대 국제 학술 포럼을 개최합니다. 본 포럼의 테마 및 일시,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테마 : 문화교섭에 있어 획기(劃期)와 창조란 무엇인가 - 역사세계와 현대를 통하여 접근하다 -

일시 : 2010 년 12 월 11 일(토)~12 일(일)

장소 : 간사이 대학 이문관(以文館)4 층

❖ 출판물 소개

- * 松浦章 / 著 · 鄭潔西 외 / 譯
『明清時代東亞海峽의文化交流』
(江蘇人民出版社 · 2009년11월 · 365頁) (中國語)
- * 松浦章 / 著
『清代帆船沿海航運史의研究』
(關西大學出版部 · 2010년1월 · 716頁)
- * 吾妻重二 / 編著
『家礼文献集成 日本篇1』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資料叢刊 27-1
(關西大學出版部 · 2010년3월 · 254頁)
- * 沈國威 / 著
『近代中日詞彙交流研究—漢字新詞的創制、容受與共享』
(中華書局 · 2010년2월 · 588頁) (中國語)
- * 沈國威 · 内田慶市 / 共編著
『近代東アジアにおける文体の変遷—形式と内実の相克を越えて』
(白帝社 · 2010년3월 · 276頁)
- * Nishimura Masanari / 編著
『Excavation of Da Kai : a Neolithic circular settlement site in the upper reach of Dong Nai river, southern Vietnam. Southeast Asian Archaeology Data Monograph, No.1. The foundation for safeguarding the underground heritage in Southeast Asia.』
(Foundation to Safeguard the Underground Cultural Heritage in Southeast Asia · 2009년11월 · 106頁) (英語)
- * Nishimura Masanari, Sato Minoru, Kimura Mizuka and Okamoto Hiromichi / 共編著
『Cultural reproduction in its face』
(Institute for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Kansai University · 2010년3월 · 278頁) (英語)
- * Nguyễn Quang Trung Tiển, Nishimura Masanari / 編著
『Văn hoá lịch sử Huế qua góc nhìn làng xã phụ cận và quan hệ với bên ngoài. (フエの文化と歴史 : 周辺集落と外部からの視点)』
(Thuận hoá 出版社 · 2010년3월 · 379頁) (베트남어)
- * 篠原啓方 · 井上充幸 · 黄蘊 · 氷野善寛 · 孫青 / 共編著
『文化交渉による変容の諸相』
(關西大學文化交渉學教育研究拠点 · 2010년3월 · 357頁)
- * 岡本弘道 / 著
『琉球王國海上交渉史研究』
(榕樹書林 · 2010년3월 · 263頁)

❖ 인사이동

- * 2010 년 2 월 1 일부로 아라타케 켄이치로(荒武 賢一朗)씨가 COE 조교로 부임.
- * 2010 년 3 월 23 일부로 왕 덩취(王 頂倨) COE-RA 가 퇴임.
- * 2010 년 3 월 31 일부로 쑨 칭(孫 靑)씨가 COE-PD 를 퇴임, 푸단(復旦)대학으로 진출.
- * 2010 년 3 월 31 일부로 오즈키 요코(大槻 暢子) · 미야케 미호(三宅 美穂) · 둥 커(董 科) COE-RA 가 퇴임.
- * 2010 년 4 월 1 일부로 이케다 토모에(池田 智恵)씨가 COE-PD 로 부임. 왕 이쥬(王 亦錚) · 셴 웨이웨이(沈 薇薇) · 저우 슈양슈양(鄒 雙雙) · 정영실(鄭英實) · 천 치송(陳 其松)씨가 COE-RA 로 부임.
- * 2010 년 5 월 1 일부로 리 요우팅(李 宥霆)씨가 COE-RA 로 부임.

글로벌COE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ICIS)’

기요 원고모집 안내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에서는 기요 『동아시아 문화교섭연구』(Journal of East Asia Cultural Interaction Studies)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응모하신 원고는 편집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원고

동아시아 문화교섭에 관한 논고, 연구 노트, 기타

(2) 사용언어 및 자수

일본어 : 20,000자 정도

중국어 : 20,000자 정도

영어 : 4,000어 정도

(3) 주의 사항

(a) 150자 정도의 영문요지를 첨부해주시십시오.

(b) 제출원고는 MS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c) 주석은 각주를 사용해 주십시오.

(d) 참고문헌은 목록없이 '각주'로만 작성해 주십시오.

(e) 도표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한 상기 자수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4) 투고하실 원고의 이차이용(전자화 또는 일반공개)에 대해서는 원고계재시에 집필자가 본 거점에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출 마감일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564-8680

日本國大阪府吹田市山手町3-3-35

關西大學文化交渉學教育研究據點

『東亞細亞文化交渉研究』編集委員會

TEL : 06-6368-0256

E-Mail : icis@jm.kansai-u.ac.jp

편집 후기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만남을 체험해 왔지만 흡사 수년전 유학시절과 같은 기분을 다시금 느낀다. 당시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문화 차이에서 자극을 받았다면 지금은 문화이라는 영역 안에서 언어·역사·사상과 같은 별개의 전문분야, 베트남·말레이시아·한국 등 중국학 영역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접하며 자극을 받고 있다.

만날 기회가 많아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유학 시절 ‘버스 안에서의 만남도 만남은 만남’이라는 외국인 친구의 말에 놀란적이 있다. 물론 이는 그들이 이성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내가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 그러나 연구에서 ‘만남’— 낮선 것, 낮선 사람과의 새로운 접촉 또는 교류는 자신 이외의 문제 의식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는 자기의 문제의식이 갖는 존재 의의에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다각적인 세계로의 접근을 획득하는 것에도 연결된다. ICIS라고 하는 다문화, 다분야가 모이는 장소에서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용기를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담당:이케다 토모에/池田 智恵)

표지사진에 대하여

2003년 9월 6일, 내몽고 서부 어지나에서 유적 조사를 끝낸 우리는 념하(寧夏)의 은(銀)강으로 여행을 떠났다. 대략 750 km의 거리. 도중에 천아호(天鵝湖)라는 작은 호수가 보이는 지점에서 쉬어 가기로 했다. 일찌기 이 도로 왼편에는 비와코(琵琶湖)면적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 거연택(居延澤)이 자리잡고 있었다. 거연택은 기후변화와 개발의 진전으로 급격히 축소되었고 현재는 이 천아호만이 가까스로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되돌아 보면 황량한 고비사막을 지나 지평선 저 너머까지 일직선의 포장도로가 끝없이 이어져 있다. 오르도스(Ordos)의 인산(陰山)에서 신장(新疆)의 동부 하미까지 최단거리로 묶는 이 중요한 교통로는 도중에 산재하는 오아시스를 따라 옛날도 지금도 같은 장소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 루트를 한나라의 젊은 장군 광거병(霍去病)이, 돌궐과 위구르의 기마 군단이, 서하(西夏)와 몽골의 역전(驛傳)이, 서역 제국의 사절단과 대상(隊商)이, 그리고 코즈로프(Kozlov, Pyotr Kuz'mich)와 스타인(Marc Aurel Stein)이 이끄는 탐험대가 왕래하며 유라시아 동서를 관통하는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은 이 간선도로를 따라 송전선과 통신망이 놓이고 간쑤(甘肅)성 자위관(嘉峪關)에서 어지나를 지나 몽골국을 묶는 화물철도가 정비되었다. 유라시아 각지를 왕래하는 사람, 물품, 에너지, 그리고 정보의 흐름은 앞으로 더욱 더 활발해질 것이다.



[촬영 : 이노우에 미즈유키(井上 充幸)]



Reflection 6

ICIS Newsletter, Kansai University

발행일: 2010년 7월 31일
발행: 2010년 7월 31일

關西大學文化交涉學教育研究據點
日本國大阪府吹田市山手町3-3-35
우편번호 594-8680 / TEL +81-6-69999-0610
E-Mail icis@ml.kansai-u.ac.jp / URL <http://www.icis.kansai-u.ac.jp/>

關西大學文化交涉學教育研究據點

ICIS

